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학교 내 구강건강관리행태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s of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in School

이선미*, 하정은**, 김민지***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치위생학과**, 동서대학교 보건의료계열 치위생학과***

Sun-mi Lee(sm50327@hanmail.net)*, Jung-Eun Ha(hajungeun@bu.ac.kr)**,
Min-Ji Kim(icealsw@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칫솔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를 파악하여, 대학생이 학교에서 구강건강관리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를 탐색하고,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구강건강관리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부산 소재 K대학 재학생 2,788명이었다. 남성은 1,536명(48.7%), 여성은 1,252명(51.3%)이었고, 전공별로는 보건계열이 670명(24.0%), 비보건계열이 2,118명(76.0%)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칫솔 휴대 비율은 보건계열 670명 중 473명(70.6%)였고, 비보건계열 2,118명 중 770명(36.4%)로 보건계열 학생이 칫솔을 휴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칫솔을 휴대한 1,243명의 학생 중에서 외부에서 식사 후 칫솔질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보건계열이 74.8%로 비보건계열보다 높았고, 칫솔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는 칫솔을 휴대하고 있는 그룹에서 학교 내 칫솔질 실천율과 치실이나 치간솔의 사용율, 음주 후 칫솔질 실천율이 칫솔을 휴대하지 않는 그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내에서 칫솔질 실천율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이를 닦는 비율은 42.8%로 나타나,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이를 닦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귀찮아서 이를 닦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신념과 태도 및 지식을 올바르게 형성시키려면, 현 시점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며, 칫솔 배부나 칫솔 교체 사업 등과 같은 실질적인 대학생 대상 건강증진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중심어 : | 보건계열 | 비보건계열 | 구강건강관리행태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s of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in school. This cross-sectional study included 2,788 students(1,536 males and 1,252 females)(670 Health-Related Majors and 2,119 Health-Unrelated Major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he proportion of toothbrushes portable according to the majors were as follows: health-related majors 473(70.6%) from 670 students and health-unrelated majors 770(36.4%) from 2,118 students. And, oral health behaviors(tooth brushing in school, use of dental floss or interdental brushes and after drinking of tooth) were better in carrying a toothbrush group than no-carrying group.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howed more intensive oral-health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college students to promote their oral health state.

■ keyword : | Health-Related Major | Health-Unrelated Major | Oral Health Behaviors |

* 본 논문은 "2014년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비로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08월 24일

수정일자 : 2015년 10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0월 20일

교신저자 : 김민지, e-mail : icealsw@gmail.com

I. 서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자신의 건강을 방어할 수 있는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습관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한번 형성된 건강습관은 쉽게 고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1]. 따라서 성인이기 되어 습관이 고착되기 전에 올바른 건강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의 습관을 바탕으로 성인기의 구강보건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가까운 미래에 사회진출과 한 가정을 이루는 역할을 하므로 구강건강에 대한 행위와 습관이 사회주변인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행위와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 또한, 대학생 시기의 건강관리 습관은 성인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측인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습득과 활용은 건강한 성인기를 보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3].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20~24세 연구치 우식 유병률은 39.2%로 높게 나타났고, 지난 1년간 치통경험률은 44.1%로 조사되어, 거의 절반 정도가 구강질환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59.3%, 치실 사용률은 20.3%, 치간칫솔 사용률은 14.1%로 조사되었다[4]. 이와 같이 성인 초기 대학생들은 구강보건 인식수준이 낮고, 많은 대학생들이 구강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양한 연령층(청소년, 임산부, 근로자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여러 구강보건사업이 실시 및 확대되고 있지만 대학생은 배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증가된 자유시간, 아르바이트, 식사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 잦은 결식과 야식, 음주 및 흡연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5], 대학생은 대학이라는 자율성과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6].

이와 같이, 건강행태가 적절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생들

의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 관련 환경 요인 등 구강건강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및 행태와 같은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나[7-9], 대학생들의 생활터인 학교에서 구강건강관리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칫솔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를 파악하며, 대학생이 학교에서 구강건강관리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를 탐색하여,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구강건강관리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소재 K대학 재학생 중 기숙사에서 점심식사 후 이를 닦을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기숙사에 살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10일~12월 19일까지 설문조사 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하여 분석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된 일부를 제외한 2,788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방법

전공별로 칫솔의 휴대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성별, 연령, 학과 등을 조사하였고, 칫솔의 휴대 여부와 휴대하는 이유 및 구강건강관리행태와 학교에서 이따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구강건강관리행태는 학교 내에서 칫솔질 여부, 잠자기 전 칫솔질 여부, 음주 후 칫솔질 여부, 구강관리용품(치실, 치간칫솔, 구강양치액 등)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대학교 내에서의 칫솔질 수행 여부 및 칫

솔질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통계 프로그램(SPSS Inc.)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공별로 칫솔 휴대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구강건강관리행태 차이는 카이제곱검정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칫솔 휴대 여부

연구대상자는 [표 1]과 같이, 전체 2,788명으로 남성은 1,536명(48.7%), 여성은 1,252명(51.3%)이었고, 전공별로는 보건계열이 670명(24.0%), 비보건계열이 2,118명(76.0%)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칫솔을 휴대하고 다니는 대상자는 1,243명(44.6%)으로 나타났고, 1,545명(55.4%)은 휴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1,536명 중 558명(36.3%)이 칫솔을 휴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성은 1,252명 중 685명(54.7%)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칫솔을 휴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에 따른 칫솔 휴대 비율은 보건계열 670명 중 473명(70.6%)였고, 비보건계열 2,118명 중 770명(36.4%)로 보건계열 학생이 칫솔을 휴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칫솔 휴대 여부 (n, %)

	전체	칫솔의 휴대 여부		p*
		예	아니오	
전체	2,788 (100.0)	1,243 (44.6)	1,545 (55.4)	
성별				
남성	1,536 (48.7)	558 (36.3)	978 (63.7)	0.000
여성	1,252 (51.3)	685 (54.7)	567 (45.3)	
전공				
보건계열	670 (24.0)	473 (70.6)	197 (29.4)	0.000
비보건계열	2,118 (76.0)	770 (36.4)	1,348 (63.6)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함

2. 연구대상자의 전공별 칫솔 휴대하는 이유

전공별 칫솔 휴대하는 이유는 [표 2]와 같이, 칫솔을 휴대한 1,243명의 학생 중에서 외부에서 식사 후 칫솔질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보건계열이 74.8%로 비보건계열보다 높았다(p=0.001).

표 2. 연구대상자의 전공별 칫솔 휴대하는 이유 (n, %)

	전공		p*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외부에서 식사 후 칫솔질 꼭 해야 하기 때문에	356 (74.8)	519 (64.8)	0.001
입냄새 없애기 위해	33 (6.9)	95 (11.9)	
주변사람 가지고 다녀서	21 (4.4)	36 (4.5)	
기타	66 (13.9)	151 (18.9)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함

3. 연구대상자의 칫솔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

칫솔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는 [표 3]과 같이, 학교 내에서 칫솔질을 실천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칫솔을 휴대하고 있는 그룹에서 87.4%로 나타났고, 학교 내에서 칫솔질을 하지 않는 학생들 중에는 칫솔을 휴대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87.3%로 나타나, 칫솔을 휴대하는 학생들의 학교 내 칫솔질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또한 칫솔을 휴대하는 그룹에서 음

표 3. 연구대상자의 칫솔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 (n, %)

	칫솔의 휴대 여부		p*
	예	아니오	
학교 내 칫솔질 실천			
예	1,038 (87.4)	150 (12.6)	0.000
아니오	202 (12.7)	1,384 (87.3)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			
예	1,159 (44.9)	1,421 (55.1)	0.149
아니오	81 (39.7)	123 (60.3)	
음주 후 칫솔질 실천			
예	1,030 (45.5)	1,233 (54.5)	0.037
아니오	122 (39.2)	189 (60.8)	
치실 /치간솔 사용			
예	430 (55.3)	348 (44.7)	0.000
아니오	813 (40.4)	1,197 (59.6)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함

주 후 칫솔질을 시행하는 학생은 45.5%, 음주 후 칫솔질을 시행하지 않은 학생들은 39.2%로 조사되었고, 칫솔을 휴대하지 않는 학생들 중 음주 후 칫솔질을 시행하지 않은 학생들이 60.8%로 나타나, 칫솔을 휴대하고 다니는 학생들에게서 음주 후 칫솔질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뿐만 아니라, 치실이나 치간솔의 사용율도 칫솔을 휴대하는 그룹이 칫솔을 휴대하지 않는 그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전공을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로 나누어 칫솔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보건계열에서는 칫솔을 휴대하고 있는 그룹에서 학교 내 칫솔질 실천율 및 치실이나 치간솔의 사용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비보건계열 학생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칫솔을 휴대하고 있는 그룹에서 학교 내 칫솔질 실천율 및 치실이나 치간솔의 사용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표 4. 연구대상자의 전공별 칫솔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 (n, %)

	칫솔의 휴대 여부		p*
	예	아니오	
보건계열			
학교 내 이닦이			
예	449 (89.4)	53 (10.6)	0.000
아니오	23 (13.8)	144 (86.2)	
잠자기 전 이닦이			
예	440 (70.3)	186 (29.7)	0.507
아니오	33 (75.0)	11 (25.0)	
음주 후 이닦이			
예	403 (71.1)	164 (28.9)	0.554
아니오	37 (67.3)	18 (32.7)	
치실/치간솔 사용			
예	184 (80.7)	44 (19.3)	0.000
아니오	289 (65.4)	153 (34.6)	
비보건계열			
학교 내 이닦이			
예	589 (85.9)	97 (14.1)	0.000
아니오	179 (12.6)	1249 (87.4)	
잠자기 전 이닦이			
예	719 (36.8)	1,235 (63.2)	0.086
아니오	48 (30.0)	112 (70.0)	
음주 후 이닦이			
예	627 (37.0)	1,069 (63.0)	0.243
아니오	85 (33.2)	171 (66.8)	
치실/치간솔 사용			
예	246 (44.7)	304 (55.3)	0.000
아니오	524 (33.4)	1,044 (66.6)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한

4. 학교 내 칫솔질 실천율 및 칫솔질 하지 않는 이유

학교 내에서 칫솔질 실천율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이를 닦는 비율은 42.8%로 나타나,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이를 닦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와 같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귀찮아서 이를 닦지 않는다'는 비율이 보건계열 61명(37.9%), 비보건계열 520명(39.6%)로 가장 높았고, '칫솔이 없어서 닦지 않는다'는 비율이 보건계열 46명(28.6%), 비보건계열 366명(27.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이유는 전공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0.317$).

표 5. 연구대상자의 전공별 학교에서 이닦지 않는 이유 (n, %)

	전공		p*
	보건	비보건	
불결한 화장실 환경	7 (4.3)	84 (6.4)	0.317
수도시설 부족	13 (8.1)	96 (7.3)	
타인시선 부담	8 (5.0)	41 (3.1)	
귀찮음	61 (37.9)	520 (39.6)	
시간 부족	17 (10.6)	86 (6.5)	
이닦을 필요성 못느낌	3 (1.9)	49 (3.7)	
휴대용 칫솔 없음	46 (28.6)	366 (27.9)	
기타	6 (3.7)	71 (5.4)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한

IV. 고안

성인 초기의 대학생시절에 장착된 건강습관은 성인기 건강한 삶에 기반이 된다. 이 시기에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생애주기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만 학교교육으로 대학생은 제외 되어 있고, 성인구강보건교육이 20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성인 범주에 대학생이 포함은 되어 지나,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위해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학교에 칫솔을 휴대하고 다니는 대상자는 1,243명(44.6%)으로 나타났고, 전공에 따른 칫솔 휴대 비율은

보건계열 670명 중 473명(70.6%)였고, 비보건계열 2,118명 중 770명(36.4%)로 보건계열 학생이 칫솔을 휴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영임과 허희영은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에 비해 혀 세정 및 스케일링 경험과 구강보건교육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고[9],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는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11]. 이전 연구와 같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보건계열 학생들의 칫솔 휴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관련 전공자들이 건강증진을 위한 행태가 더욱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비보건계열은 36.4%만이 칫솔을 휴대하고 있어, 추후에는 비보건계열 전공 대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구강건강증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구강건강관리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구강건강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학교 양치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을 수행 중이다[12].

황 등[13]은 양치시설이 아동들의 구강환경관리능력 및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양치시설이 설치된 아동들에서 구강환경관리능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관리행태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양치시설이 설치된 경우, 구강관리용품을 별도로 휴대하지 않고도 구강건강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구강건강증진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구강정책목표인 아동(7~12세)의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은 2008년 23.7%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14],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8세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은 32.7%, 12세는 25.2%로 낮게 나타났으나[15], 양치시설이 설치된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점심직후 칫솔질 수행 비율이 64.1%로 나타나[16], 양치시설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행태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학령기 아동에게는 개인위생은 물론 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을 위해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건강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구강건강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 대학교에서는 양치시설과 같은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물적 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직접 칫솔을 휴대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칫솔의 휴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2,788명 중에서 칫솔을 휴대하고 다닌다고 응답한 학생이 1,243명(44.6%)으로 조사되어 절반도 안되는 학생이 학교 내에서 이를 닦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이를 닦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 닦는 것이 귀찮다는 의견이 1순위로 나타났고, 칫솔이 없어서 닦지 못한다는 의견이 2순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양치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학교에서는 양치시설과 같은 물적 공간이 설치가 미비하며, 재정여건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직접 칫솔을 휴대하여 관리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건강관련 행위는 생물학적 과정이기보다 이차적인 사회 심리학적 과정이라는 특성을 지니고[17], 신념은 각종 구강건강 관련 행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18]. 하지만 바람직한 구강건강실천은 긍정적인 신념 뿐만 아니라 태도 및 올바른 구강지식을 통해 이뤄질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강보건에 대한 신념과 태도 및 지식을 올바르게 형성시키려면, 현 시점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며, 칫솔 배분이나 칫솔 교체 사업 등과 같은 실질적인 대학생 대상 건강증진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보건계열 대학생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전공으로 인한 학생들의 행태 차이 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심층적인 연구와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V. 결론

대학생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구강관리용품의 휴대를 권장함으로써, 대학생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질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 소재 K대학 재학생 중 기숙사에 살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칫솔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를 파악하며, 대학생이 학교에서 구강건강관리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를 탐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공에 따른 칫솔 휴대 비율은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칫솔을 휴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칫솔을 휴대한 학생 중에서 외부에서 식사 후 칫솔질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높았다
3. 칫솔을 휴대하고 있는 그룹에서 학교 내 칫솔질 실천율과 치실이나 치간솔의 사용율, 음주 후 칫솔질 실천율이 칫솔을 휴대하지 않는 그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 내에서 칫솔질 실천율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이를 닦는 비율은 42.8%로 나타나,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이를 닦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귀찮아서 이를 닦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총괄적으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생활터 양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의 제공이 어렵다면,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보건계열 대학생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참고 문헌

- [1] 김애경, “성인의 건강개념과 건강행위에 대한 서술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24권, 제1호, pp.70-84, 1994.
- [2] 이현옥, 김아진,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흡연관련 특성과 구강건강실천분석,” 한국치위생과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83-190, 2014.
- [3] 최정은, 김영국, “대학생들의 영양 지식·식이 자기 효능감 및 식습관과 메뉴선택행동과의 관계,” 한국의식경영학회, 제15권, 제6호, pp.249-275, 2012.
- [4]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제3차년도 원시자료 분석결과, 2013.
- [5] 민성희, 오혜숙, “원주 지역 일부 대학생의 식생활 태도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16권, 제3호, pp.214-224, 2001.
- [6] 임미영, 한국 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예측 모형 구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7] 이재승, 이홍수, “일부 수도권 대학생의 구강보건행태와 그 연관요인,”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8권, 제3호, pp.331-346, 2004.
- [8] 정승일, 배광학, 김진범, 이선미, 김설악, 김영경, 김지화, 남용옥, “치위생과와 비보건계열 학과 대학생의 불소함유세치제 사용률,”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30권, 제4호, pp.411-420, 2006.
- [9] 김영임, 허희영, “보건계열 대학생 및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건강경험과 구강보건교육요구도 비교 연구,” 대한치과위생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9-27, 2008.
- [10] 정미애, 김민지, 하정은, “대학생의 구강관리용품 휴대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8호, pp.243-249, 2014.
- [11] 채민정, 최길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pp.53-63, 2012.
- [12] 보건복지부, 201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구강보건, 2014

- [13] 황윤숙, 김광수, 정재연, 유영재, 김수화, 임미희, “양치시설여부에 따른 초등학생의 구강환경관리 능력 및 구강건강관리 행태 변화,”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제14권, 제3호, pp.27-40, 2013.
- [14]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보건복지부, 2011.
- [15] 보건복지부,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3.
- [16] 황윤숙, 학령기 아동의 양치실태 분석 및 대책 연구, 한국건강증진재단, 2010.
- [17] 공만석, 이홍수, 김수남, “모친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과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18권, 제1호, pp.54-93, 1994.
- [18] 김설악, 김경희, “일부 간호학원 학생들의 구강건강신념과 예방적 구강건강행위 이행과의 관계 연구,” 대한치과위생학회지, 제1권, 제1호, pp.13-31, 1999.

김민지(Min-Ji Kim)

중신회원



- 2011년 2월 : 부산대학교 치의학 석사
- 2013년 8월 : 부산대학교 치의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학, 공중구강보건학 등

저자소개

이선미(Sun-Mi Lee)

정회원



- 2009년 2월 : 부산대학교 치의학 석사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치의학 박사수료
- 2008년 3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 구강보건교육학, 공중구강보건학 등

하정은(Jung-Eun Ha)

중신회원



- 2011년 8월 : 서울대학교 치의학 석사
- 2014년 2월 : 서울대학교 치의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학, 치위생 연구방법론 등